



얼른 만나고 싶어

독후 활동지



다음



● 이름을 불러 보아요.



1.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 보아요.

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이름을 묻고 부르곤 합니다.

이름을 붙이고 부르면서 관계가 시작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.

그래서 이름은 고운 소리, 아름다운 뜻을 담아서요.

	어떻게 부르나요?	무슨 뜻이 담겼나요?
태명	심바	태몽으로 사자 꿈을 꾸어서.
이름	이로울 이 제 활시위 현 량	활시위처럼 끈게 뻗어나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.
태명		
이름		

2. 내 이름을 직접 짓고 이유도 적어 보아요.

3. 친구들의 애칭과 별명을 지어 보아요.

애칭 친한 사이에 쉽고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.
주로 이름을 줄여서 부르거나 발음을 바꿔서 불러요.
친하지 않은데 애칭을 부르는 건 실례예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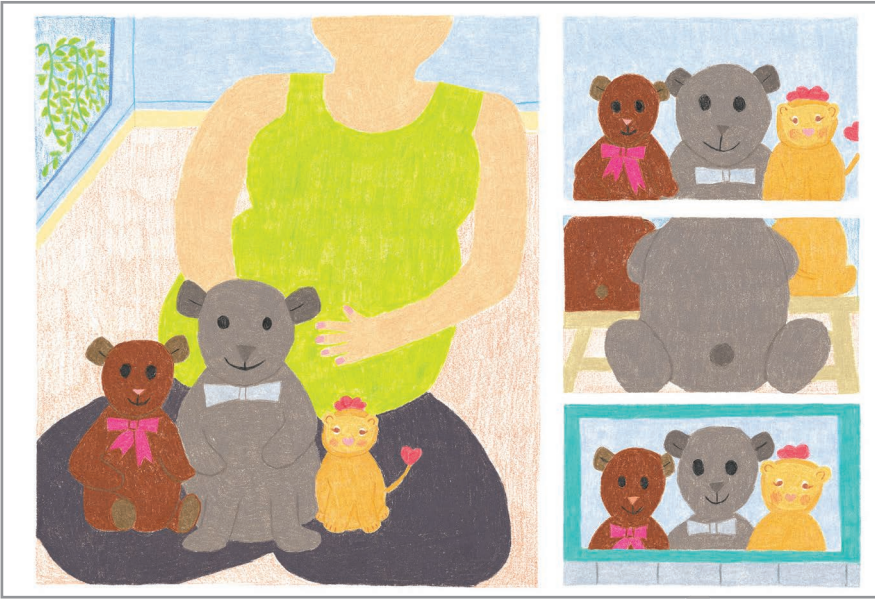
별명 실제 이름 대신 쓰이는 이름.
주로 걸모습이나 성격, 행동 등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을 지어요.
나쁜 별명을 부르면 놀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.

이름	애칭	별명
손흥민	소니: 발음을 바꿔서 부름.	손울보: 경기 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.

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음.
서로를 제대로 알려면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,
상대방의 이야기와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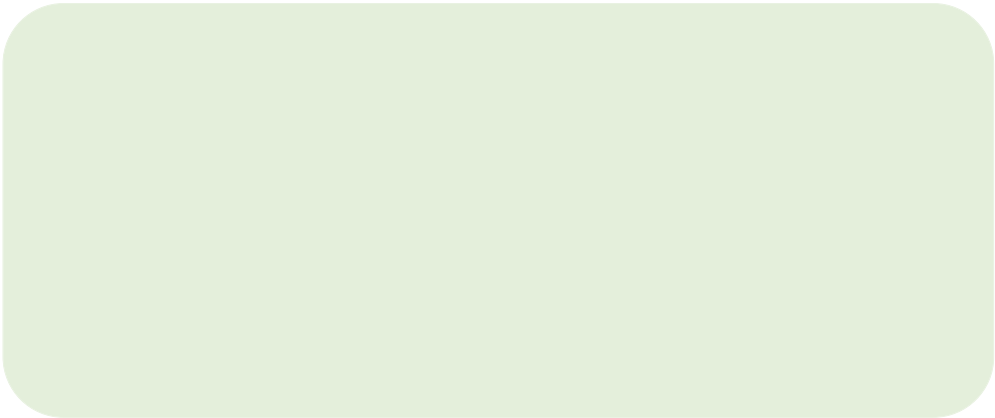
● 눈높이를 따라가 보아요.



“ 친구들이랑 엄마 무릎 위에 나란히 앉았어요.
아직은 내가 가장 작아요.
하지만 같이 놀 땐 우리들 눈높이가 나란해져요!”



1. 친구들과 아기 심바의 모습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?
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비교해 보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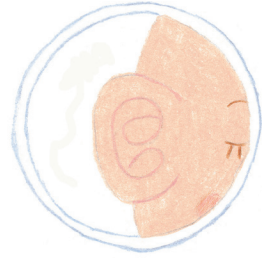


2. 아기 심바와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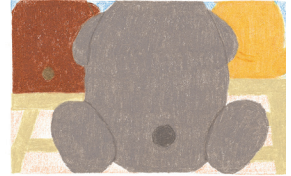
얼른 키가 커지도록 먹을 것을 많이 준다.



내가 먼저 잘 보고 나서 아기 심바에게도 잘 들려준다.



높이가 다른 의자를 준비해 키가 가장 작은 심바에게 제일 높은 의자를 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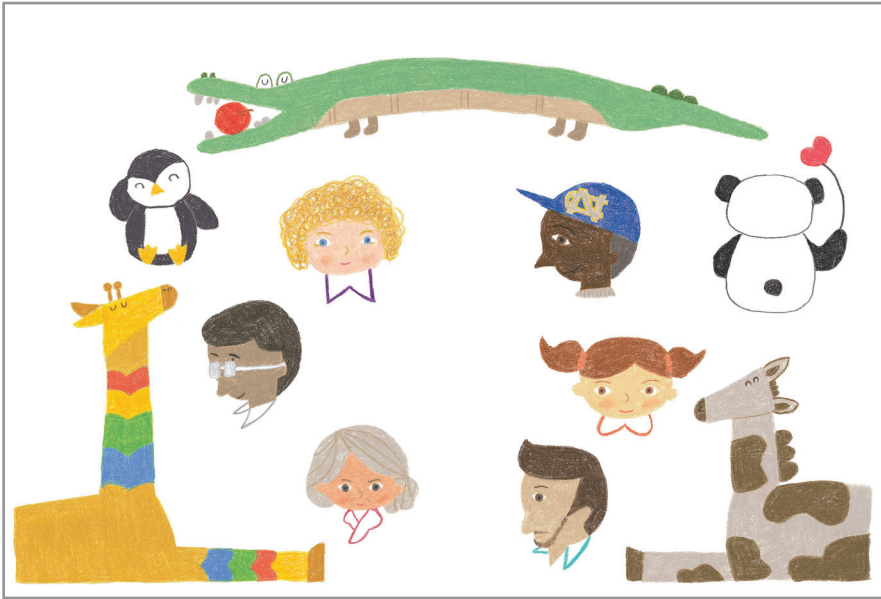


3. 나보다 키가 작거나 힘이 약한 친구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.
사람마다 상황이나 능력이 달라요. 평등해지려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
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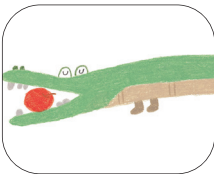
● 친구들의 생김과 시선을 살펴 보아요.



“우리 동네 이웃들은 피부색이 저마다 다르대요.
 바라보는 곳도 다르대요. 다르면 어때요?
 모두가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아요. 나도 모두를 사랑해요!”



태어난 곳 성별 나이 바라보는 것



태어난 곳

성별

나이

바라보는 것



어떤 일을 여럿이 함께 하거나 공동책임을 지는 것.
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무언가를 같이 하려면
먼저 서로의 다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.



● 자유롭게 색칠해보아요.



독후활동지
내려받기

얼른 만나고 싶어 © 이명제, 지을, 2021
홈페이지 www.jieul.co.kr
인스타그램 @jieulbooks

